

# 우리의 공기를 지켜주세요!

경북 옥계동부초등학교

6학년 신백결

“야, 나 공기가 부족한데 조금만 나누어 주면 안 돼?”

“안 돼! 요즘 공기 1g에 6만원인데 나눠주긴 너무 비싸. 그냥 공기 충전소 가서 충전해.”

“에잇 치사해. 친구끼리 그것도 못 주냐?”

친구에게 마음껏 공기를 나눠주고 싶지만, 이제는 그것도 힘들다.

지금은 2119년, 난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그대로 마시면 1시간도 못 버티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. 아무리 좋은 공기 청정기로도 해결 할 수 없는 세상이다.

100년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는 했어도 보통 때는 그냥 숨을 쉬면서 살 수도 있었다고 한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?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다. 그리고 100년 전 사람들의 다리는 팔 보다 길고, 머리는 몸통보다 두 배 정도 작으며, 심지어는 말캉한 피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. 지금 우리의 팔은 1.5m가 넘어간다. 다리는 별 쓸모가 없으니 팔보다 짧다. 머리는 어깨와 똑같은 크기에 바위 같은 피부를 갖고 있다. 팔이 길어야 멀리서도 홀로그램 패드를 누르고, 피부가 딱딱해야 공기에 섞여있는 독소를 막아낼 수 있다. 비행 모드로 날아다니거나 자율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리는 별 쓸데가 없다. 사람들은 좀 더 과학을 발전시켜 공기 문제와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머리가 자꾸 커지고 있다고 한다.

옛날에는 개인용 공기와 공기 충전소가 없었지만, 지금은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이다. 작년에는 공기가 2g에 6만원이었지만 이번 해에는 1g에 6만원이 됐다. 이젠 공기도 마음껏 사 마실 수가 없다.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.

“어라? 기사 났어. 드디어 타임머신이 개발 됐대! 이제 과거로 가서 깨끗한 공기를 가져온대!”

“뭐? 그럼 드디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나봐!”

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타임머신이 깨끗한 공기 6,000톤을 가져왔다. 그러나 그 공기

조차 순식간에 오염되고 말았다. 공기가 지독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말았기 때문이다.

“아..... 우리는 이제 어떡해야 하는 거야? 이대로 다 죽게 되는 거야?”

오염된 공기 때문에 이 지구는 결국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었다. 타임머신은 고장 났고, 우리는 공기 충전소에 남아 있는 공기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갔다. 하지만, 이제 공기와 식량이 바닥 나기 직전이다.

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? 너무 후회가 된다.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했다. 그러면서 공기의 소중함은 잊었다.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노력했어야 하는데.....

지금 후회해도 이젠 소용없다.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공기를 다 망치다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. 다시 타임머신을 고친다면 나는 과거로 갈 것이다. 그래서 우리 선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.

“우리의 소중한 공기를 꼭, 꼭 지켜주세요!”